

韓 · 日 海軍協力の可能性과 周邊國에 미치는 影響*
(The Possibility of Nav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Its Influence on Peripheral States)

金 顯 基**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examines the Nav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 to determine if the two navies can cooperate to enhance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is paper reviews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nav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describes the threats to both, and evaluates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factors to answer the questions: Is naval cooperation possible? How would might it take? what security burdens might the ROK Navy and the JMSDF be reasonably expected to assume from the United States?

Paper conclusions are based on the studies within the framework of today's realities. Consequently, the conclusions may seem undramatic. However, they are based on not what could happen if all parties agreed to accept radical change, but rather upon the assumption that all parties will want to change the least for the greatest benefit.

* 1989年 秋季學術大會時 發表된 內容임.

** 國防大學院

I. 韓·日 海軍協力の 必要性

韓國과 日本의 軍事協力 問題가 論議된 것은 80年代 初期에 이르러서 蘇聯極東軍事力の 急増과 同時에 日本의 淸々한 經濟成長으로 인해 地域安保에 대한 役割增大가 要求되는 狀況變化 때문이다.

美國이 日本에 대하여 要求하고 있는 安保役割 分擔中에는 友邦國家와의 安保協力強化를 바라고 있는데 韓·日兩國間的 軍事協力を 증용하고 있다.¹⁾ 美國이 韓·日軍事協力 增進을 從憑하고 있는 것은 美國을 頂點으로 하여 韓·日兩國이 個別的으로 맺고 있는 軍事同盟關係를 韓·美·日聯合軍事協力 體系로 發展시키고 져 하는 데 있으며 그 細部的인 意圖는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北韓의 戰爭挑發을 抑制하고 있는 韓·美相互防衛條約과 蘇聯威脅에 對備한 美·日 安保條約의 二元化 安保體制를 對共產主義 共同戰線 形態로 發展시킴으로서 政策·戰略面에서 3個國間的 紐帶를 強化하도록 誘導한다.

둘째, 아시아-太平洋地域에 配備되어 있는 美海軍力이 他地域으로 移動할 경우, 發展된 韓·日海軍協力關係를 통하여 軍事的 空白을 極小化하고 同時多發 戰略概念을 効率的으로 實施한다.

셋째, 美國의 配備戰力 減縮時에도 適用할 수 있는 韓·日間的 政策·戰略 및 戰力에 대한 統制와 調整權을 行使한다.

넷째, 日本에 대하여 對韓 安保經濟協力の 供與와 韓·日間的 軍事接觸 및 交流를 擴大하도록 증용함으로써 美國의 意圖대로 段階的이며 長期的인 韓·美·日 三國軍事協力 關係를 形成해 나간다.²⁾

韓國과 日本은 이 問題에 대한 見解와 理解가 一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韓·日 海軍協力에 관한 論議는 蘇聯海軍力の 威脅이 加重되고 있는 現象으로부터 導出된 것이므로 蘇聯의 膨脹政策을 沮止하기 위해서 政治的으로 美·日·中國의 反蘇聯合 形成과 軍事的으로 韓·美·日의 海軍協力 關係를 強化한다는 것은 重要的인 일이다.

韓國의 立場에서 보는 韓·日海軍協力の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韓國의 安保는 주로 北韓의 威脅에 焦點을 맞추어 왔다. 골바초프大統領이 아시아 특히 韓國에 關해 온건한 政策을 表明하기 이전까지 韓國에서는 北韓과 蘇聯의 軍事協力 增進에 關한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蘇聯潛水艦의 北韓基地 利用과 蘇聯太平洋艦隊의 元山灣 入港 등의 消息이 전해지던 1985년에 와서 絶頂에 다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 以後 1986년 7월

1) "FY-1983 Report of Secretary of Defense Caspar W. Weinberger, p. II-21.

2) 金宗輝外, "韓·日 및 韓·美·日軍事協力에 關한 研究" 國大院, 政策研究報告書 82-77 通卷 第52號 1982. 12. pp. 31~32.

北韓海軍이 블라디보스톡을 訪問하였으며 1987년 5월에는 蘇聯의 체르나빈提督이 平壤을 訪問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北韓-蘇聯聯合海軍機動訓練을 東海에서 實施함으로써 韓國에 큰 威脅要素로 등장하였다.

둘째, 韓半島 周邊海域에서 韓國과 日本이 海上戰 또는 空中戰에 參加하는 경우 兩國戰鬪部隊의 相互干涉 및 衝突을 豫防하기 위한 事前措置와 戰力の 効率的 運用을 위한 計劃樹立이 必要하다. 특히 蘇聯太平洋艦隊의 太平洋進出을 위한 東海와 大韓海峽과 같은 比較的 峽小한 海域에서의 作戰時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韓國은 韓·美相互防衛條約을 基盤으로 北韓의 威脅에 對處하고 있기 때문에 有事時 韓半島에 대한 增援軍을 위한 海上交通路의 安全確保는 絶對적으로 必要하다. 韓半島에서 戰爭勃發時 美國이 使用할 수 있는 兵站 및 作戰基地는 駐日美軍基地가 될 것이며 이러한 軍事基地가 계속 使用될 수 있도록 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美7艦隊 勢力은 日本의 美軍基地를 전적으로 利用할 수 밖에 없는 점을 考慮하여 政策的 次元에서 韓·日 海軍協力を 통하여 確固한 保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平時 海上交通路는 商業貿易으로서 世界 貿易地를 연결해 준다. 韓國은 北韓과 지속적인 대치관계에서 보면 海上交易路가 특별히 重要하다고 본다. 첫째, 韓國은 海上을 통하여

1987년도에 410억불을 輸入했고 470억불의 物品을 輸出하였다. 이와같이 韓國은 美國, 日本 그리고 西獨과 같은 交易國과의 航路保護가 요청된다. 둘째, 韓國은 몇가지 戰略物資(原油, 石油製品, 몇가지 鑛物)의 全部 또는 大部分을 海外輸入에 依存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韓國의 經濟·軍事的으로 重要的 海上交通路에 대한 3가지 威脅을 안고 있다. 첫째, 北韓海軍의 潛水艦과 攻擊用 高速艇의 增加로 인한 攻擊의 姿勢, 둘째, 蘇聯海軍이 大韓海峽을 包含한 韓半島 周邊海域의 빈번한 使用, 셋째, 國際航路로 使用되는 海峽을 封鎖威脅하는 東南아시아 또는 기타 地域의 主要 軍事的 紛爭 또는 政治的 危機 등이다.

넷째, 敵에 대한 情報蒐集의 出處를 擴大하고 多樣化하기 위해서도 日本과의 情報交流와 協力이 必要하다. 日本의 軍事的 役割이 增大되면 이에 따른 情報蒐集能力이 強化될 것이며 蘇聯 및 北韓에 관한 海上情報 및 첩보활동 資料를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相互協력이 要求된다.

다섯째, 軍需 및 防産技術 分野에서 戰時所要物資의 獲得, 裝備部品과 大量所要物資의 獲得依存度を 分散시키기 위해서 평소부터 日本과 安保次元의 經濟·技術協力 關係를 維持할 必要가 漸增되고 있다.

여섯째, 만약 美國이 1980年代와 1990年代에 아시아大陸에 더 이상 死活的 利益이 없다는 見

解 때문에 美議會에서 일고 있는 駐韓美軍의 撤收問題, 韓國內에 擴散되고 있는 反美感情, 財政赤字와 貿易赤字로 허덕이는 美國이 한국을 相對로 한 通商壓力 그리고 韓國의 北方外交의 推進으로 漸次 그 外交半徑이 넓어져 長期的으로 韓·蘇 그리고 韓·中關係의 持續的인 發展은 韓國安保問題와 關聯해서 미국의 지렛대는 그 比重이 減少할 경우 등을 고려해볼 때 駐韓美軍撤收를 가정하고 東海와 韓半島周邊 海域에 대한 韓·日協力 關係가 必要하다.

그러나 이러한 協力の 必要性에 대하여 制約要因도 많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檢討가 要望된다.

II. 韓·日 海軍協力の 制限要素

韓·日兩國은 國交正常化以後 많은 分野에서 서로 協力關係를 維持해오고 있다. 그러나 軍事分野에서는 共產主義의 威脅을 다같이 받고 있는 友邦國이면서도 軍事協力 關係는 별로 없는 狀態이다. 여기서는 相互協力の 必要性에 관한 根本的인 問題와 또한 軍事協力 關係의 維持發展을 저해하는 要因들이 存在한다.

우선 韓·日 軍事協力 關係가 發展되지 않는 理由는 첫째, 韓國과 日本 兩國의 基本關心에

차이가 있다. 韓國의 立場은 現實的인 北韓의 威脅에 있지만 日本의 主要 關心事는 蘇聯으로부터의 潛在的인 威脅에 어떻게 對備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兩國의 共通關心事項의 制約을 받고 있다.

둘째, 韓國과 日本은 抑制 및 防衛戰略面에서 美國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兩國은 軍事力面에서 相互補完性이 희박하며, 主要 情報手段, 武器體系 및 防産技術分野에서도 전적으로 美國에 依存하고 있어서 協力關係 維持에 制約이 있다.

셋째, 韓·日兩國 國民은 뿌리 깊은 民族感情을 가지고 있다. 韓國人이 믿고 있는 것은 韓國이 日本보다 앞선 歷史를 지녔다는 것이고 日本은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전에 考古學에서 韓國의 主張을 支持하는 學說을 發表했다.³⁾ 日本人들은 그들 國家는 神에 의하여 創造되었기 때문에 다른 種族과는 아주 特別하고 韓國人은 水準이 낮고, 行動이 거칠고 그리고 무례한 民族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반대로 韓國人은 日本人을 거만하고 버릇없는 民族이라고 생각하고 있다.⁴⁾ 또한 韓國이 日本에 대한 惡感情은 35年 동안의 日帝占領이 問題가 된다. 日本은 朝鮮에 대한 王位制度의 폐지, 他國家와의 各種 條約의 철폐, 창씨개명, 신사

3) Edwin O. Reischauer, *The Japanese*(Cambridge, Mass. : Belknap Press, 1977), p. 35.

4) Hyun-Ki Kim, *Internat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 An Analysis with a Focus on the Maritime Dimension and the Geo-strategic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Aberdeen, United Kingdom, 1987), pp. 266~267.

참배 강요 그리고 韓國語 抹殺運動展開 等の抑壓政策을 썼던 것이다.⁵⁾ 그외에도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外交, 政經 分離政策, 在日僑胞 問題 등이 對日感情을 더욱 惡化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一般的인 制約事項外에도 韓國과 日本은 각기 다른 對內外的 制約要因을 갖고 있다.

韓國의 立場에서 韓·日軍事協力 關係를 制限하는 要因은,

첫째, 日本과의 軍事協力이 增大되면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이 弱化될 可能性이 있다.

둘째, 韓國國民들의 對日感情이 惡化되어 있어 必要에 따라 善意的인 軍事交流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日本의 軍事的 進出로 해석하여 國內政治上의 問題로 惹起될 수 있다.

셋째, 韓·日軍事協力の 強化는 蘇聯을 자극하게 되어 北韓에 대한 軍事支援을 強化하게 되고 北韓은 이를 對內外 宣傳攻勢에 使用함으로써 韓國의 政治·外交의 立場을 不利하게 할 可能性이 있다.

넷째, 韓國의 軍事機密事項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

한편 日本의 立場에서보면,

첫째, 韓·日軍事協力 關係의 強化는 곧 중

래의 美國이 擔當하던 東北아시아에서 軍事的 役割을 減少시키고 日本의 役割이 增大될 것이다.

둘째, 韓國의 安保는 日本에도 重要하며 北韓의 威脅이 계속 存在하고 있다고 公式的으로 表明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韓·日軍事協力 關係로 인한 軍事的·經濟的 負擔 增大를 우려하고 있다.

셋째, 韓·日軍事協力 關係를 日本이 主導的으로 誘導하거나 兩國의 軍事協力 關係가 원만히 形成되면 日本은 地域內 國家들의 反발을 야기시킬 수 있다.

넷째, 專守防衛概念에 의한 法的規制와 國內 輿論 및 野黨의 反對 등을 意識하여 公式的인 韓·日軍事協력을 회피하고 있다.

Ⅲ. 韓·日海軍의 協力可能性

1965年 韓·日國交 正常화가 될 때까지도 韓國은 日本에 대하여 “防日”을 國是로 하여 相當한 反感을 가지고 있었다. 사토首相은 韓·日 親善關係의 維持를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였고 1969년에는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防衛에도 緊要하다”⁶⁾라고 선언했다.

다나카政權은 北韓과 中國에게 親密한 關係

5) Woo-Keun Han, *The History of Korea*(Honolulu :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4), p. 465; Kyung-Cho Chung, *Korea : The Third Republic*(New York : Macmillan Co., 1971), p. 15.

6) Hong, N. Kim, “Japa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65.” in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eds by Tae-Hwan Kwak, Wayne Patterson and Edward A. Olsen (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3), p. 305.

를 維持하기 위하여 韓國을 경원시하는 기미가 보였으며, 다시 1974년 여름 도시오外相은 “韓國만이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的인 國家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그는 덧붙여서 “韓國은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이 없다.”⁷⁾라고 主張하여 日本의 親北韓路線을 보여 韓國의 關心을 끌었다.

카터大統領의 駐韓美軍撤收 發表가 韓·日關係를 미묘하게 만들었다. 韓國은 이 事件을 日本 후쿠다首相이 美國의 提案에 아무 꺼리낌 없이 同調하여 일어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日本은 만약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南·北韓間의 軍備競爭이 深化되어 地域安保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쿠다首相은 카터大統領을 만나서 韓半島의 平和를 保障할 수 있도록 韓·美·日의 事前協議없이 駐韓美軍의 撤收를 하지 않기로 確約을 받았다.⁸⁾

將次 駐韓美軍撤收에 對備하고 軍事協力 增進을 위해서 1979년에 日本防衛廳長 간리는 노재현國防長官을 訪問하였다. 兩者會談後 相互間의 軍事指揮者의 交換訪問 增加와 韓國艦艇의 日本寄港을 허락했다.⁹⁾

지금까지 韓·日間의 계속적인 外交의 努力은 나카소네首相의 韓國訪問으로 某種의 軍事協力の 可能性을 惹起시켰다. 1983年 1月 나카

소네首相은 戰後 日本首相으로서 처음으로 서울을 公式적으로 訪問하였고 兩國間에 相當히 오랫동안 끌어오던 40억불의 安保經濟協力 問題도 妥結하였다.

더욱더 歷史的이며 획기적으로 重要的 事件은 1984년 9월 全斗煥大統領의 日本訪問이었다. 이는 韓國大統領으로서 처음 日本訪問이면서 韓·日關係의 부자연스러움을 치유하는데 큰 役割을 했을 뿐만 아니라 政治·經濟·軍事面의 將來에 커다란 希望을 주었다.

이러한 政治的 關係에도 불구하고 軍事分野에서는 아직까지 直接的이고 公式的인 協力關係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다만 制限된 人士 및 情報分野의 接觸이 있었을 뿐이다.

1970年以後 韓國의 合同參謀本部和 日本의 統合幕僚部間에, 그리고 韓國의 陸, 海, 空軍本部和 日本防衛廳의 該當 部署間에 每年 1~2回 定期的으로 情報交流 會晤를 갖어 왔다. 또한 1968년부터 日本 統合幕僚議長과 自衛隊 幹部要員이 韓國의 國軍의 날 行事에 참여해오고 있고, 1976년부터는 韓·日兩國의 國防大學院 教授와 學生들이 每年 1回씩 相互 交換訪問을 實施하고 있다. 한편 韓·日間의 國會議員들도 1968년부터 東京과 서울을 交代로 訪問하여 每年 議員懇談會를 實施하고 있는데, 1977

7) *Ibid.*, p. 308.

8) Claude A. Bus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for Polic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2), pp. 110~111.

9) Hong N. Kim, *op. cit.*, p. 313.

년부터는 兩國의 國防關係 議員들이 별도의 모임을 갖고 安保事項에 관한 相互關心事를 論議하여 왔다. 日本側은 陸軍大學生과 陸軍士官學校生徒들의 相互交換 教育問題를 이 모임에서 提議하였다.¹⁰⁾

그러면 지금까지의 政治的·軍事的 變化가 곧 韓·日海軍協力에 관한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結論的으로 보면 印象的인 對答을 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韓·美·日 三國은 그들의 政治的·軍事的 狀況에 根本的인 變化에 의해서 海軍協력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 相互間에 더 큰 어떤 利益을 얻기 위해 變化할 때만이 協力이 可能하다는 事實을 꼭 명심해야 한다.

1. 協力の 利點

韓·日海軍이 協力함으로써 兩國이 最上의 利益을 얻을 수 있는 몇가지 重要的 理由가 있다. 첫째, 國防費面에서의 費用 對 效果이다. 韓·日海軍이 相互協力함으로써 現在 保有하고 있는 艦隊勢力을 利用하여 兩國이 防衛해야 할 海域을 公有한 東海를 統制함으로써 國防費에 더 큰 損失없이 安保의 質을 높힐 수 있다.

이러한 問題는 韓·日兩國에 重要的 것이지만 東北아시아에서 安保의 一部責任을 日本에게 맡기려는 美國의 意圖와 특히 國防費 增額에 대한 美國의 壓力이 加重되고 있는 韓國과 日本은 相互 海軍協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國防費 增額問題는 日本國民에게 너무 敏感하기 때문에 나카소네가 首相이 된후에도 國防費 支出의 上限線인 1%를 超過하지 못했다. 이러한 日本의 態度에 대해 一部 美國上院議員들은 不滿足을 나타냈다. 美太平洋艦隊司令官을 지낸 롱(Robert Long)提督도 이 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繼續해서 強力하게 그들(日本)에게 攻勢能力 向上을 위해서가 아니라 日本 自衛能力을 위한 防衛費 增加를 要請했다.”¹¹⁾ 美國은 日本政府에게 充分한 自衛能力을 갖추기 위해 必要的 一定한 數量의 艦艇과 航空機를 保有하도록 促求했다. 美國의 判斷에 의하면 日本은 적어도 350대의 戰鬥機, 70척의 驅逐艦과 프리깃트艦, 25척의 潛水艦, 25대의 對潛哨戒機 등이 1980년대末까지 必要할 것이라고 말하였다.¹²⁾ 最近 *The Military Balance 1988~1989*에 의하면 日本은 340대의 戰鬥機, 61척의 驅逐艦과 프리깃트艦, 14척의 潛水艦, 그

10) 金徹凡 “日本의 對韓安保協力 可能性 分析,” 政策研究報告書 82-6 通卷41號, (서울: 國防大學院, 1982. 12), p. 42.

11) Takashi Oka, “US Admiral Urges Japan to Increase Its Defense Budget,” *Christian Science Monitor*, 24 June 1983, p. 6.

12) Geoffrey Murray, “Rearming Japan : Nakasone’s Policies Renew Old Debate,” *Christian Science Monitor*, 4 April 1983, pp. 12~13.

리고 30대의 對潛哨戒機¹³⁾ 등을 保有하고 있어 美國의 目標水準에 못미치고 있다.

韓·日海軍面의 協調의 努力은 現在 各國이 保有하고 있는 海軍力의 融通성을 增進시킬 수 있으며 國防費를 節約하면서도 防衛能力을 提高시킬 수 있다. 그들 兩國 海軍이 保有하고 있는 艦艇勢力은 90척의 驅逐艦과 프리깃트艦, 19척의 潛水艦, 682대의 戰鬥機(F-4, F-5, F-15, F-16) 그리고 47대의 對潛哨戒機 등을 保有하게 된다.¹⁴⁾

韓·日 海軍力을 統合·運用함으로써 多様な 種類의 많은 艦艇을 保有함으로써 發生하는 戰術的 價値는 融通性이다. 이러한 融通성은 北韓의 挑發, 쿠릴列島에서의 蘇聯의 威脅 그리고 韓國과 日本 周邊海域의 主要 海峽統制에 대하여 融通性있게 對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잘 訓練된다면 兩國의 海軍力은 한 國家의 海軍力처럼 運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國防費의 節約과 效果面에서 보면 協력이 韓·日兩國에 큰 惠澤을 줄 수 있다.

둘째, 韓·日海軍이 協力하게 되면 美國이 설정한 이 地域에서의 安保目標를 도울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美國은 韓國과 日本에 貿易赤字로 허덕이고 있으며, 71년만에 처음으로 1984年度에 債權國에서 債務國으로 전환될

危機에 놓여 있어 貿易에서 약 1,010억\$의 赤字를 記錄했다.¹⁵⁾ 이러한 美國의 貿易赤字 問題는 전적으로 韓·日兩國이 責任질 것은 아니다. 外國에서 強勢인 미국달러가 美國 輸出業者에 대한 輸出競争을 弱화시킨데도 큰 原因이 있다. 이러한 貿易收支의 不均衡이 美國으로 하여금 國防費의 節減을 생각하게 하고 韓·日兩國에 대한 國防費 增額에 보다 큰 公憤을 하도록 壓力을 가하게 된 것이다. 海軍協力에 대한 韓·日間의 同意는 이러한 壓力을 減少시키고 美國을 다소 安心시키는 結果가 될 것이다.

셋째, 韓·日海軍協력이 始作되면 兩國關係를 여러 分野에서 強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協力關係는 더 나아가서 政治的 經濟的 關係로 擴散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日本과 國交正常化以後 계속되는 貿易不均衡속에 있다. 특히 1965년부터 1982년까지의 貿易赤字는 230억불이나 된다.¹⁶⁾ 이러한 問題도 廣範圍한 日本市場에 接近하여 赤字를 減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도 海軍協力으로부터 始作하여 여러가지 經濟 및 社會問題의 解答을 찾을 수 있다. 점점 海軍協력이 發展되면 非軍事分野까지도 惠澤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兩國間의 協力の 進行이 되면

13) *The Military Balance*, 1988~1989, pp. 165~166.

14) *Ibid.*, pp. 165~166, 168~9.

15) "Record US Trade Deficit in '84: Factor Use Falls," A·P·Wire Service Report in the *Monterey Peninsula Herald*, 19 March 1985, p. 13.

16) Hong N. Kim, *op. cit.*, p. 318.

될수록 國家間的 적대감정을 維持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넷째, 韓·日海軍協力の 利點은 그들 兩國의 安保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이다. 韓·日間에 公有하고 있는 東海와 南海보다 이 協力を 可能하게 하는 海域은 없다. 北韓海軍은 潛水艦 21척, 프리깃艦 2척 그리고 365척의 小型 高速艇 등을 保有하고 있고 특히 潛水艦과 미사일을 裝着한 高速艇이 主戰鬪勢力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⁷⁾ 이러한 北韓海軍을 無力化하기 위해서 日本海上自衛隊의 協調는 韓國으로서는 크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韓·日海軍은 東海와 南海에서 日本海上自衛隊와 聯合訓練이나 作戰을 實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이 主張하는 1,000마일 海上交通路 防護의 一翼을 支援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 海上交通路의 防護는 日本 뿐만 아니라 韓國에게 平時에 安寧秩序와 經濟復興 그리고 戰時에 戰爭物資補給 및 部隊增援에 있어서 死活的인 海路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蘇聯이 必要時 韓國과 日本에 이르는 海上交通路를 封鎖 혹은 차단한다면 韓·日兩國의 經濟는 심각한 打擊을 받게

된다.¹⁹⁾ 韓·日海軍 聯合作戰을 통하여 이러한 海上交通路를 防護하게 해 준다면 美7艦隊의 任務중 一部를 輕減시켜 줄 수 있어서 美國을 도와 주는 結果가 된다.²⁰⁾

마지막으로 韓·日海軍協力は 美國의 安保問題로부터 自主의이며 地域安保問題에 대하여 보다 積極的으로 對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自主權은 國威를 높이는데 重要하므로 韓·日兩國이 오랫동안 希求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¹⁾

美國의 見地에서 봐도 이러한 自主權은 바람직한 것이다. 自主權의 獲得은 곧 바로 責任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韓·日兩國은 그들의 安保에 대한 直接的인 介入이 可能的한 한편 새로운 安保責任에 대한 國防費의 增加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日海軍力의 增強없이는 美國의 統制力이 弱화된다는 것은 이 地域安保에 커다란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韓·日海軍協력으로 인하여 이 地域에서 美國의 軍事的 影響이 漸次로 줄어진다면 韓國과 日本에게 부과된 防衛責任을 明確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더욱 더 자세히 연구해야 할 課題이다.

17) *The Military Balance, 1988~1989*, pp. 167~168.

18) "Text of Communique on Reagan-Suzuki Discussions," *New York Times*, 9 May 1981, p. 7.

19) Claude A Buss, e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 98.

20) Daniel Southerland, "Mansfield: Crucial Year in US - Japan Ties," *Christian Science Monitor*, 10 Feb. 1983., p. 3.

21) Nobuhiko Ushiba et. al., "Why Japan Does not Do More Globally,"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h 1983, p. 23; Robert Keatly, "South Korea's President Seeks Acceptance Abroad," *Wall Street Journal*, 18 January 1982, p. 23.

2. 언제쯤 可能할 것인가?

만약 韓·日海軍간에 協력이 成就된다면 언제쯤이나 實施可能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對答은 實際로 쉽지는 않다. 그러나 韓半島의 周邊情勢, 韓·日兩國 首腦들의 相互交換訪問後의 軍事協力 그리고 1990년부터 美國, 英國, 캐나다, 日本, 호주 등 7個國이 參加하는 大規模 聯合海上機動訓練인 環太平洋訓練(Rim of Pacific: RIMPAC)에 처음 參加²²⁾ 등에 대한 某種이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90年代를 주목할만하다고 본다.

韓·日間의 海軍協力は 즉각적으로 大規模의 協力を 기대하지 말고 事實上으로 있음직한 아주 낮은 次元의 海軍將校의 交換教育이나 艦艇의 親善訪問 등으로 始作하여 公式的인 海軍聯合訓練으로 變化될 수 있는 契機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연해서 이것을 段階的인 方法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제1 단계: 現在 進行中인 人士交流 및 一般 軍事情報交流를 계속 實施하여 韓·日兩國이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큰 問題가 없는 分野의 交流幅을 擴大 試圖한다.

- 海大學生과 海軍士官學校生徒의 交換教育
- 一般的인 海軍戰略 및 戰術세미나 實施
- 定期的인 海洋情報 및 周邊假想敵國의 情報資料交換
- 艦艇의 港口訪問

제2 단계: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韓·美·日 3國間의 公式的인 海軍交流 및 協力

- 作戰海域에서의 責任地域 부여
- 定期的인 合同訓練
- 聯合通信 및 敎理開發
- 武器體系의 共同研究 및 生産

韓·日兩國은 輿論에 의하여 國家의 政策이 相當한 影響을 입게 되므로 兩國 海軍協力에 대한 必要性을 國民들에게 認識시키는 것도 이 協力を 成就하는데 큰 役割을 할 것으로 믿는다.

만약 第1段階의 交流가 이루어 진다해도 어느 程度 틀에 잡힌 海軍協력에 到達하려면 4~5년이 所要될 것이고 公式的인 協力關係로의 發展은 10餘年은 걸릴 것으로 본다. 이러한 公式的인 協력이 이루어진 후 韓·日兩國이 가졌던 그들의 主張을 하나하나 解決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어떠한 形態의 協力體制가 바람직한가?

韓·日海軍協력을 위해 兩國中 어느 一國의 海軍이 다른 國家의 海軍에 의해서 指揮 統制 받는 體制로 發展된다면 兩國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러한 協力體制는 결코 成立될 수 없을 것이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美海軍이 中心的인 役割을 해야 한다.

美海軍만이 現時點에서 韓·日海軍을 잠정적으로 統制해 나가는 方向이 妥當할 것 같다. 여

22) 朝鮮日報, 1989. 9. 20. 1面

기에는 두가지 理由를 들어 說明할 수 있다. 이것은 美國의 經濟的 能力과 美國의 地域安保에 대한 寄與度라고 볼 수 있다.

美國은 이러한 指揮體制를 發展시킴에 있어 韓·日兩國중 어느 국가도 다른 國家의 國威나 自負心을 손상시키지 않는 方向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美7艦隊內的 指揮本部 要員을 증원 없이도 사용가능할 수 있다. 예를들면 美7艦隊 司令部이 假稱 “韓·美·日聯合海軍司令部” 職責을 追加的으로 遂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一次的인 協調는 既存 組織인 駐韓美海軍 司令部와 駐日美海軍司令部와 韓·日海軍의 相對役들과 하면 될 것이다.²³⁾

三國間의 聯合海軍訓練이 計劃된다면 各國은 自己 責任訓練分野에 대한 計劃을 樹立하면 될 것이다. 效果的인 計劃樹立을 위하여 특별히 “戰術指揮將校”(Officer in Tactical Command : OTC) 制度를 채택하여 各國이 參加함으로써 三國間에 惹起되는 問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韓·美·日 三國間에 聯合訓練의 計劃부터 實施에 대한 문제는 더욱 깊은 研究가 必要하지만 小規模 訓練으로부터 始作하여 對空戰, 對潛戰, 對艦戰 그리고 上陸作戰 등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이다. 訓練時 用語, 節次 그리고 通信은 美國의 戰術的 節次에 의해서 進行되는

것이 効率的인 것이다. 三國間의 海軍은 武器 體系의 類似性과 相互作戰能力을 保有하고 있다는 점이 協力에 큰 長點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實施해오고 있는 韓·美간의 팀·스피리트 訓練 그리고 美·日간의 림팩訓練時 모두 英語를 共通語로 使用하기 때문에 戰術運用節次에도 큰 問題는 없다고 본다.²⁴⁾

韓·美·日 三國間의 聯合訓練이 계속되면 틀림없이 NATO나 RIMPAC이 가지고 있는 명성처럼 重要的인 訓練이 될 것이다. 적절한 訓練을 통하여 韓·日海軍要員들은 專門化되면서 戰鬪準備態勢가 完備되고 同時에 善隣關係를 維持해 나갈 수 있다.

만일 韓·日 周邊海域에서 實際 危機가 發生한다면 韓·日兩國는 各國의 責任地域에서 作戰을 實施하다가 聯合作戰 指揮를 받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非効率性은 다소 持續되겠지만 점점 美國의 指揮統制없이도 韓·日兩國 海軍이 相互 긴밀히 協調 運用될 時期가 到來할 것으로 본다.

美國의 指揮統制없이 韓·日海軍間의 協力を 增進하기 위해서 韓·美·日 三國間에 指揮統制을 할 수 있는 “韓·美·日聯合海軍司令部” 職責은 交互的으로 實施하는 方案도 考慮해 볼만 하다. 이러한 方法이 施行되기 이전에 韓國과 日本은 特定訓練期間동안에 他國의 指揮統

23) 金顯基, “韓·日 海軍協力 可能性에 관한 研究.” 海洋研究論叢第1輯(鎮海:海軍士軍學校, 1988. 12), p. 53.

24) *Ibid.* p. 48.

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가짐이 절대 必要하다. 이러한 指揮體制로의 轉換은 지금 現在狀況으로서는 요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效果的인 協力이 이루어지면 指揮權의 순환은 지극히 當然한 것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指揮體制에서 생기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도 美海軍이 重要的 役割을 해야한다. 韓·日海軍協力の 成功을 위해서 어쩌면 美海軍의 指導力과 熱性이 韓·日海軍當局보다 더 필요할런지 모른다. 訓練期間동안 韓國이나 日本艦艇에 연락장교로 乘艦하는 將校들은 專門的이고 다분히 外交的이며 그리고 韓·日海軍協력에 肯定的인 態度를 보여줌으로써 成功的인 任務를 遂行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美海軍은 韓·日兩國海軍이 처음부터 美海軍이 지니고 있는 高度의 戰術機動能力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韓·日兩國은 短時日內에 여러가지 면에서의 能力을 갖추게 될 것이다. 몇차례 訓練을 통하여 美國을 包含한 韓·日兩國은 동아시아의 防衛에서 가장 效果的인 戰力으로 成長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記述한 韓·日海軍協力時 指揮統制를 위한 編成運用은 實際的인 면에서 대단히 어려우나 政治的·安保的 利益을 極大化시키기 위해서 韓·日兩國이 극복해야 할 當面課題임을 強調하고 싶다.

4. 어떤 安保的 責任을 分擔해야 하는가?

이 問題는 韓國과 日本에 이르는 海上交通路 保護 그리고 韓·日海軍이 各者 어떠한 任務를 遂行하기를 期待하는지 評價하는데는 어렵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같이 韓半島 周邊海域에는 東海, 大韓海峽, 시모노세키海峽, 쓰가루海峽, 소야海峽 등이 있다. 蘇聯太平洋艦隊의 主要 軍港인 블라디보스톡과 페트로파블로프스크에서 蘇聯艦艇이 太平洋으로 進出하기 위해서는 東海와 上記한 主要海峽을 通過해야 하기 때문에 이 海峽들에 대한 戰略的 重要性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東海는 韓半島, 日本 그리고 蘇聯의 海岸과 接하고 있고 특히 主要 3海峽 즉 大韓海峽, 쓰가루海峽 그리고 소야海峽 등을 가지고 있다.

極東地域에서 蘇聯海軍의 가장 큰 港口는 블라디보스톡인데 蘇聯太平洋艦隊의 2/3程度의 艦艇이 이곳에 정박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은 많은 艦艇의 軍需支援을 위해 重要的 港口지만 戰時에 機雷로 封鎖당할 위험도 크다. 이러한 機雷封鎖는 太平洋에서의 作戰에 蘇聯太平洋艦隊가 參加하지 못하도록 막는 戰時시나리오이기도 하다.²⁵⁾

또 다른 主要 軍港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는 특히 美7艦隊와 對抗하기 위하여 蘇聯의 戰略核潛水艦, 攻擊潛水艦 그리고 기타 水上戰鬪艦

25) Takashi Oka, "US-Soviet Naval Strategies in the Pacific : Geography the Key," *Christian Science Monitor*, 3 May, 1983,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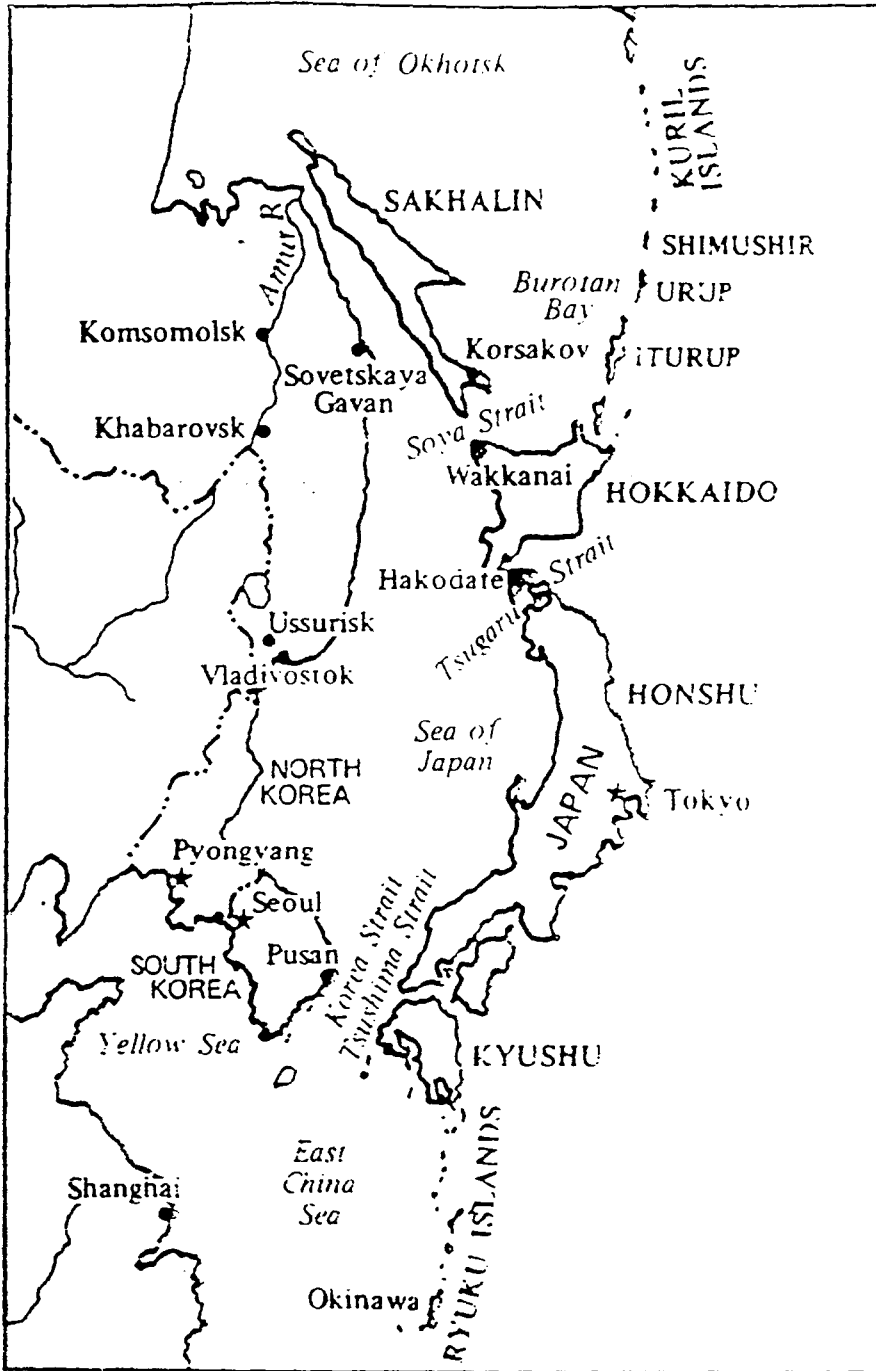


그림 1 韓半島 周邊海域

을 정박시키고 있다. 비록 페트로파블로프스크는 太平洋上의 不凍港이긴 하지만 軍需支援을 위한 地上交通路가 잘 發達되어 있지 않아서 전적으로 海上支援 즉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의 補給에 依存하고 있다. 戰時에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海上에 의한 軍需支援없이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莫強한 海軍力을 效果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²⁶⁾

美7艦隊司令官을 지낸 홀콤(Holcomb)提督은 日本 홋카이도와 蘇聯 사할린사이의 24마일 폭의 소야海峽이 蘇聯戰略家들에게는 “第1優先順位”를 가진 海峽이라고 主張했다.²⁷⁾ 蘇聯太平洋艦隊가 소야海峽을 統制할 能力을 갖추지 못할 때 蘇聯은 戰時에 戰術的인 不利點을 갖게 되어 結局 作戰에 失敗할런지 모른다.

韓半島의 地理的 位置와 關聯해서 黃海 역시 重要하다. 南浦에 位置한 北韓의 西海艦隊司令部의 主要 作戰海域이며 韓國, 北韓 그리고 中國沿岸과 맞닿는 곳이어서 韓國安保에는 지극히 重要하다. 만약 北韓의 西海艦隊가 黃海에서 海洋統制權을 掌握하여 韓國의 海上交通路를 妨害할 경우 韓國의 安保는 危險하게 된다. 1950年 9月 15日 맥아더將軍의 歷史的인 仁川上陸作戰의 成功은 北韓으로 하여금 黃海의 重要性을 再認識 시켜 줄 것이다.

韓·日兩國의 周邊地域인 東海와 黃海, 主

要海峽 그리고 이 主要海峽으로부터 1,000마일의 海上交通路 保護 등이 韓國과 日本海軍間에 協力해야 할 主要한 課題인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같이 三國聯合統制下에 이 海域에 대한 適切한 責任地域을 配分하여 警備任務를 부여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責任限界에 꼭 包含되어야 할 것은 戰時 블라디보스톡의 蘇聯太平洋艦隊가 太平洋으로 進出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韓半島 周邊海域에서 效果的으로 作戰을 遂行하지 못하도록 韓·美·日 聯合海軍을 配置하는 일이다. 이러한 計劃을 達成하기 위해서 大韓海峽, 소야海峽, 쓰가루海峽에 대한 機雷封鎖와 함께 對潛戰과 對水上戰에 대한 準備가 必要하게 될 것이다.²⁸⁾

IV. 韓·日 海軍協力과 周邊國에 미치는 影響

1. 美國

韓·日海軍間的 協力이 이루어 지면 美國이 가장 큰 利益을 얻게 될 것이다. 美國이 갖는 利點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美太平洋艦隊가 保有한 小規模의 艦艇을 이 地域에 配備시켜도 極東에서의 安保를 維持할 수 있고, 잔여함정을 利用하여 훨씬 좋은 艦艇 交代運用의 利點을 갖는다. 韓·日海軍의 側面에서 보면 定期的으

26) Takashi Oka, "Geography the Key" *op. cit.*, p. 3.

27) *Ibid.*

28) *Ibid.*

로 美海軍과 海上機動訓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戰鬪能力을 提高시킬 수 있다. 韓·日海軍協력이 正常的으로 이루어 지면 만일 제3地域에서 美海軍력이 要求될 때 美國의 防衛費나 極東地域의 海軍력을 이 地域에서 다른 地域으로 運用할 수 있다. 즉 美國은 有事時 다른 地域의 危機에 對備할 수 있는 融通性있는 海軍력을 保有하게 되는 利點이 있다.

2. 中國

中國은 經濟復興, 國內政治의 安保, 그리고 中·蘇問題 등에 政策의 優先順位를 부여하고 있어 韓·日海軍協력이 이루어 지더라도 中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關心이 없을 것이다.

中國은 黃海에서 海洋法的인 安保에 많은 關心이 있다. 中國의 北海艦隊는 潛水艦 2個戰隊, 護衛艦 3個戰隊, 1個의 機雷戰隊, 1個의 上陸戰隊를 包含하여 약 300척의 艦艇을 保有하고 있는데 黃海를 主作戰海域으로 使用하고 있다.²⁹⁾ 또한 黃海는 北韓 西海艦隊의 主作戰海域이기도 하다. 軍事力 均衡에 의해서 分析해보면 中國과 非韓海軍은 그들의 軍事力중에서 劣勢한 海軍력을 가지고 있다.³⁰⁾ 中·蘇紛爭에서도 國境이 陸續되어 中國海軍이 차지하는 比重은 적다. 中國이 黃海에서 자유롭게 作戰할 수

있는 한 韓·日海軍協力 問題는 蘇聯이 中·蘇國境에 配備한 SS-20보다는 關心이 적다고 볼 수 있겠다.

中國에게 더욱 重要한 것은 韓·日海軍協력이 北韓에 미치는 影響이다. 中國-北韓의 親善關係는 蘇聯이 베트남과 同盟關係를 가진 이후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³¹⁾ 왜냐하면 北韓에 대한 蘇聯의 主導權이 中國으로 하여금 소련이 中國을 包圍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韓·日海軍協력에 대하여 北韓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中國은 이 協력에 反對할 것이고 특히 中國이 이 協력에 방관한다면 北韓은 蘇聯쪽으로 기울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려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中國은 韓·日海軍協력에 아마도 反對할 것으로 보인다.

3. 臺灣

臺灣의 立場에서 보면 韓·日海軍協力は 상당히 複雜한 問題로 생각된다. 이러한 協力は 東아시아의 安保에 큰 役割을 하는 肯定的인 조치로 評價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共產主義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臺灣側에게는 상당한 自負心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蘇聯이나 北韓이 臺灣의 主要 關心事는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9) *The Military Balance, 1988~1989*, p. 150.

30) *Ibid.*, pp. 147~151, 167~168.

31) Ralph H. Clough, "Recent Trend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ed., Claude A. Bus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 499.

고教授(Tun-Hwa Ko)는 “臺灣은 中國本土以外에는 敵이 없다.”³²⁾고 말하고 있다.

臺灣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敵이 있다면 時間이다. 美國과 中國이 國交正常化³³⁾된 1972년부터 臺灣은 동아시아諸國으로부터 고립화되기 始作하였다. 臺灣政府는 이러한 것을 充分히 理解하면서 대만은 中國이 提案하는 臺灣의 統一問題의 교섭을 단호히 거절했다.

現在 臺灣은 中國을 信賴하지 않고 있으며 美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美·中國交正常化 이전에 狀態로 돌아 갈 수 없다. 그러나 臺灣이 期待하고 있는 安保概念은 現在로서는 不可能하지만 韓·日·臺灣의 “鐵의 三角關係 (Iron Triangle)”의 形成을 바라고 있다.³⁴⁾ 臺灣은 이러한 安保概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可能的한 한 美國이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要求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첫째, 臺灣關係法(Taiwan Relation Act)의 계속 준수

둘째, 中國의 要求에 대하여 臺灣問題를 더 이상 讓步不可

셋째, 太平洋地域에서 海上交通路 保護

및 海軍協力에 관한 問題를 非公式的으로 장려하고 協調體制를 研究³⁵⁾ 등이다.

美國이 臺灣의 이러한 要求를 받아 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3번째의 提議는 韓·日海軍協力에 보탬이 될 것 같다. 美國과의 親善關係 維持를 必要로 하는 臺灣에게는 韓·日軍事協력을 아마도 反對하지는 않을 것 같다.

4. 베트남

베트남은 韓·日海軍協力에 關心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主要關心事는 蘇聯이 이 協力이나 淸蘭灣의 그들의 海軍基地에 대하여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蘇聯은 繼續的으로 베트남내의 海軍基地 및 駐屯兵力을 增強시키려 한다는 것을 想定할 수 있다. 現在 22대의 장거리정찰기 및 전투기(TU-16 Badger와 TU-95 Bear), MIG-23 1개전투전대 그리고 잠수함을 포함 전투함정을 약 25척 보유하고 있다.³⁶⁾

베트남은 韓·日海軍協力에 反對할 것은 自明하다고 볼 때 中·蘇·베트남關係에서 中國은 이 協력을 베트남에서 소련의 영향력 행사에 對

32) Tun-Hwa Ko., "The Interests and Policies of the Republic of China," i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ed., by Claude A. Bus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 461.

33) Yung Wei,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acific Basin," i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ed., by Claude A. Bus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 476.

34) A. James Gregor and Maria Hsia Chang, *The Iron Triangle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35) *Ibid.*, p. 461.

36) *The Military Balance*, 1988~1989, p. 44.

抗할 潛在力으로 간주할런지 모른다. 또한 蘇聯이 동아시아에서 西方安保를 強化하기 위해서 美國의 同盟國間的 이러한 協力を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蘇聯은 베트남을 充分히 支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蘇聯의 가까운 軍事同盟國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保障은 없다. 第2次世界大戰以後 베트남은 그들 國家에게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國家들을 추방하려는 움직임들을 歷史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외세추방운동의 첫 사례는 프랑스이었으며 그 후에 美國과 日本이 그 敎訓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은 蘇聯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만약 수년후에 베트남이 漸次的으로 政治的 關係에서 蘇聯과 소원해 진다해도 베트남이 韓·日海軍協力에 同意하는 方向으로 움직이리라는 예측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다른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國家經濟는 도탄에 빠져있고, 中國과의 國境問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캄푸치아와의 軍事的 問題가 있으며, 政治的 關係에서 보면 蘇聯과 큐바를 除外하고는 地球上에 친구가 없다.³⁷⁾

結論的으로 베트남과 蘇聯이 經濟的·軍事的으로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는 한 베트남은 韓·日海軍協力에는 否定的 反應을 나타낼 것이다.

만약 베트남은 소련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變化된다면 韓·日海軍協力에 관한 그들의 意見도 變化할 것이다.

5.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그리고 부르나이 등 6개국 代表로 構成된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은 아직 政治的 問題에 대한 完全한 合意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蘇 두 強大國의 基本理念중에서 ASEAN國家 가운데 共產主義理念에 特別한 關心을 가진 國家는 없다.³⁸⁾ 비록 蘇聯이 莫強한 軍事力을 保有했다는 것은 모두 認定하지만 經濟的·社會的 모델로서 ASEAN 國家들에게 매력력을 끌지 못하고 있다.

韓·日海軍協力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安保에 寄與하게 될 것이고 이는 ASEAN國家나 美國에게 긍정적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ASEAN國家중에서 美國의 主盟邦인 필리핀은 韓·日海軍協력을 積極的 反對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필리핀은 제2차세계대전시 日本人들이 저질른 만행으로 인하여 필리핀 국민에게 惡感情이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제2차세계대전시 日本人들이 占領하여 抑壓政治를 한 것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데, 韓·日海軍協力에 대해서는 關

37) Douglas Pike, "The Security Situation in Indochina," i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ed., by Claude A. Bus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p. 328~329.

38) Claude A. Buss, *op. cit.*, p. 301.

心이 있는 것 같다. 1983년 수하르트大統領의 워싱턴방문시 美國이 日本의 軍事力 增強을 위해 너무 壓力을 넣고 있다고 그의 見解를 피력했었다. 그러나 그뒤 나카소네首相의 ASEAN 巡訪時 수하르트大統領에 대한 나카소네의 外交力이 또 發揮되었다. 나카소네와 수하르트의 會談後 수하르트大統領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日本의 軍事力 增強에 대하여 反對할 意思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전적으로 自衛의이라면 말이다.”³⁹⁾ 인도네시아政府는 韓·日海軍協력이 순전히 自衛의이라면 同意할런지 모른다.

자카르타當局은 그러한 協力を 위하여 더 많은 法的 權限을 要求할런지 모른다. 世界 最大의 회고도 國家로써 인도네시아는 宗教를 배격하는 共產主義에 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⁴⁰⁾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超強大國의 對決時 被害可能性을 最少化하기 위해서 平和, 自由 그리고 中立地域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 ZOPFAN) 運動을 위한 主導國이다. 이런 結果로 인도네시아는 蘇聯을 抑制하기 위해

서 軍事力 增強을 基礎로 하는 어떠한 協力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見地에서 韓·日海軍協力の 動機面에서 몇가지 異見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면 제1의 威脅國은 長期的으로 蘇聯이 아니고 中國이다.⁴¹⁾ 이러한 海軍協력이 中國의 威脅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研究없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전적인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싱가폴의 이광료首相과 말레지아의 모하메트 (D. S. Mahathir Mohammad) 首相은 韓·日海軍協력에 相當한 호응을 할 것이다. 兩國은 英國의 傳統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고 蘇聯의 威脅에 強力한 對處를 重視하기 때문이다. 모하메드首相은 말레지아의 “東方政策”은 個人的인 신앙이며 이는 國家를 初期 産業化段階로부터 도약하도록 하고, 동아시아國民들로 하여금 아시아 安保를 保障하도록 하는 것이다.⁴²⁾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서 말레지아는 1979年과 1982年을 比較해보면 약 200%의 國防費를 增加시켰다.⁴³⁾ 韓·日海軍協力は 地域安保 責任에 더욱 기여

39) *Ibid*

40) Lie Tek Tjeng, “The Asia-Pacific Power Balance as Seen from Jakarta : A Projection for the Eighties and Beyond,” i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ed., by Claude A. Buss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 335.

41) *Ibid*, p. 338.

42) Chardran Jeshurun, “The Interests and Policies of Malaysia : A Study in Historical Change,” i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ed., by Claude A. Buss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 349.

43) *Ibid*, p. 356.

할 것으로 추측되어 환영할 것 같다.

싱가폴의 이광료首相은 역시 韓·日海軍協力에 同意할 것 같다. 그는 東南아시아의 安保에 긴요한 소련과 그의 同盟國인 베트남에 對抗하기 위하여 ASEAN聯合戰線의 結成과 더욱이 ASEAN國家聯合의 軍事訓練까지도 主張해왔다.⁴⁴ 그는 또한 自由貿易의 主唱者이고 優先順位로써 海上交通路의 自由를 支持하기 때문에 이러한 韓·日海軍協力에 전적으로 호응할 것 같다.

泰國은 캄푸치아의 베트남의 모험주의에 가장 큰 威脅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泰國國民들은 國際關係의 게임을 잘 이해하고 통상적으로 強大國의 게임을 잘 이해하고 통상적으로 強大國의 立場을 支持해 왔다. 파리바트라(Sukhumband Paribatra)는 國民에게 말하기를 “위급할 때면 泰國國民들은 最強國이 무너지면 그 다음 強國의 편에 서면 된다⁴⁵”고 했다. 그러나 美國이 아직도 經濟的 復興과 그들의 商品을 위한 市場開放에서 利益을 追求하고 있는 한편 소련과 베트남은 태국에게 아무것도 提供할 수 없는 立場에 있다. 韓·日海軍協力에 關해서 美國이 地域에서 強大國으로 남아 있는 한 큰 關心을 表明하지 않을 것 같다.

ASEAN의 새로운 會員國인 產油國 부르나이는 말레이시아의 北部에 位置하고 있다. ASEAN 會員國의 全體人口는 3억370만명인데 부르나이는 24만명이다.⁴⁶ 부르나이는 東南아시아 國家와 같은 類型的의 國家라기 보다는 페르시아灣 國家를 더욱 닮은 듯 하다. 볼키아(Hassanal Bolkiah)國王은 實用主義的의 指導者로써 西方에 눈을 돌리고 美國의 地域防衛計劃을 支持하고 있다.⁴⁷ 韓·日海軍協力에 對한 問題는 만약 美國이 支持하는한 同意할 것 같다.

V. 結 論

日本은 太平洋에서 蘇聯軍事力의 顯示를 實感하고 있다. 만약 日本은 蘇聯의 威脅이 經濟的인 것이라면 禍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日本은 蘇聯이 太平洋에서 東·西의 軍事力 均衡이 蘇聯에 有利하게 되기를 바라며 日本을 中立化하거나 統制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있다.⁴⁸

第2次世界大戰 以後 日本은 美國의 保護下에 最少限의 國防費를 支出하면서 自國防衛에 임하고 있다. 平和主義的의 態度가 日本에 만연되고 있어 外國의 威脅에 대응하려는 國民的 姿

44) Paul Quinn — Judge, “View from Bangkok : Defense and Economy are Shared Concerns.” *Christian Science Monitor*, 4 March 1983, pp. 12~13.

45) Chandran Jeshurun, *op. cit.*, p. 362.

46) *The Military Balance, 1988~1989* pp. 159, 163, 170, 174, 176, 179.

47) Rodney Tasker, “Our Functioning Power is Only Five-and-a-Half,”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5 March 1984, p. 57.

48) Geoffrey Murray, “Tokyo Worries Soviet SS-20 May Swing West” *Christian Science Monitor*, 21 January, 1983, p. 1.

勢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日本은 蘇聯마저도 眞正한 敵으로 보지않고 潛在敵으로 본다.

韓國의 경우 北韓은 확실히 직접 위협을 주는 적국이다.⁴⁹⁾ 海軍의 見地에서 北韓海軍은 艦艇의 數量面에서는 훨씬 優勢하다. 비록 小型艦艇의 數的 優勢라 할지라도 近接한 海岸에 位置한 南·北韓은 量的 優位를 看過할 수는 없다. 北韓이 長距離 武力投射能力을 保有하지 못하고 沿岸監視 및 防禦에 重點을 두고 있고 韓國은 大型艦 위주의 海軍力을 保有함으로써 對艦, 對空, 對潛戰 그리고 特殊部隊 運用에서 質的 優勢를 보이고 있다.

蘇聯과 北韓海軍의 威脅에 效果的으로 對處하기 위해서는 韓·日海軍協력이 萬病通治藥이다. 韓·日海軍의 能力, 武器體系의 精巧性, 現實的인 動機 그리고 그들의 專門人力 등은 將次 東北아시아에서는 물론 太平洋地域의 防衛政策에서 重要な 一翼을 擔當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韓·日兩國간의 歷史的 敵對感을 극복하고 韓·美·日간의 效果的인 協力體制 構成下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北韓이나 蘇聯의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東아시아의 安保能力提高를 위한 韓國의 努力은 韓·美 紐帶關係를 더욱 鞏固히 할 수 있다. 더우기 韓國海岸이 日本海上自衛隊와 協力하여 東北아시아에서 美國의 安保負擔을 줄일 수 있다면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積極的인 方向으로 움직일 것은 틀림없다.

또한 美國이 東北아시아의 安保役割에 韓國을 끌어들임으로써 日本으로 하여금 더욱 더 이 地域安保에 寄與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韓·日海軍協力이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만일 協力時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

첫째, 日本으로서 좋은 同盟國을 얻을 수 있고 韓·日兩國의 協力에 의하여 보다 많은 艦艇으로 安保를 다지며, 日本의 國防費 增額을 要求하는 美國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韓國으로서 좋은 權威와 信賴性을 갖게 될 것이며 北韓에 대한 強力한 防衛力을 갖게 한다.

둘째, 韓·日兩國은 國防費 支出을 더 要求하지 않으면서 現在水準의 海軍力으로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다.

셋째, 韓·日海軍協력은 政治·經濟·軍事의 面에서의 兩國關係를 改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海軍協력은 協力 自體를 위한 單純한 協力이란 比평을 불식시키고 地域安保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다. 韓·美·日 海軍聯合訓練을 통하여 모든 戰鬪準備態勢와 訓練能力이 向上되게 될때 安保는 確固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利點에도 불구하고 왜 韓·日海軍協력에 어려움이 있는가? 다음 몇가지 理由로 이 協力は 어려움이 尙存하고 있다. 지금까지

49) Young-Nok Ko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Basin*, ed. by Claude A. Bus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5), pp. 71~77.

지의 韓·日關係는 보이지 않는 危機意識과 葛藤, 漁業紛爭, 貿易의 不均衡 그리고 韓·日兩國의 政權交替로 인한 政策變化 등이 內在하고 있다는 점이다. 雪上加霜으로 韓·日間に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反目과 의구심, 日本의 對北韓政策의 모호성 그리고 地域 및 自國安保에 대한 韓·美·日 三國間의 威脅評價의 差異點을 主要 障礙物로 考慮할 수 있다.⁵⁰⁾

이외에도 枝葉的인 問題로 韓·日海軍協力에 妨害되는 要因은 危機時 戰鬥部隊의 割當이다. 다시 말해서 戰時에 누가 누구를 防護하고 指揮統制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는 第2次世界大戰時 유럽과 太平洋地域에서 經驗한 것으로 韓·日海軍協力에서도 전적으로 適用될 것 같다.⁵¹⁾ 이러한 問題들은 事件마다 그 特性에 따라서 解決해야만할 어려운 課題이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어떤 部隊를 어디에 配置해야 할 것인가의 決定은 韓·美·日聯合海軍司令官에게 임하여 問題의 解答을 구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떤 問題에 대한 韓·日間の 意見對立은 항상 예상할 수 있으므로 相當한 地域에 대한 美國의 責任이 부과되어야 한다.

美國은 韓·日간의 海軍協력이 成就되며는 동아시아에서의 安保負擔이 상당히 減小하게 된다. 美海軍은 韓半島 周邊海域을 保護 혹은 支援時 軍事力을 減少시킬 수 있고 여기에 使用

될 海軍力을 他 海域에 効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美艦艇의 交代週期를 效率的으로 운영할 수 있다.

韓·日海軍間의 聯合訓練 實施는 全段階에서의 戰鬥準備態勢를 提高시키고 危機時 效率的인 海軍으로써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빠른 時日內에 韓·日海軍協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相互간의 艦艇 港口訪問, 將校交換計劃, 軍事學校의 門戶開放 그리고 海軍作戰에 관한 세미나 共同開催 등을 漸進的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이러한 軍事協力 關係의 進展에 따라 韓·日간의 政治·社會關係도 增進된다는 것은 누차 強調한 바 있다.

韓·日海軍協力이란 진정으로 있음직하고, 可能하고 그리고 要望되는 協力體이다. 이 協力에 參加하는 韓·美·日 三國은 相互간에 惠澤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美國의 犧牲的인 努力은 勿論 韓·日兩國의 보다 次元 높은 安保를 考慮하여 忍耐와 讓步를 必要로 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좋은 格言인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名句에 귀를 기울이고 實踐해야 할 時點에 있다. 韓·日間の 海軍協力만이 2000年代를 내다보면서 동아시아 安保의 核心이 된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50) Yong-Ok Park, *Korean-Japanese-American Triangle: Problems and Prospect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September 1985), pp. 20~24.

51) E. B. Potter, ed., *Sea Power: A Naval Hist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0), p. 659.